

세계 생물권 보 호 구 - 칠 보 산



내칠보의 내경대

우리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안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은 칠보산지구에 대한 수년간의 현지답사와 전면적인 생태조사를 진행한데 기초하여 이 일대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얼마전 스웨리예에서 진행된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인간 및 생물권계획 국제조종리사회 제26차회의에서는 칠보산지구를 세계생물권보호구로 등록한다는것

지리학적특징과 자연기후

에로부터 칠보산은 산과 바다의 뛰어난 풍치로 하여 《함북금강》으로 알려졌으며 산이름도 금, 은, 마노, 진주, 호박, 산호 등 진귀한 7가지 보물에 비기여 지어졌다.

우리 선조들은 철따라 아름답게 단장되는 칠보산의 경치를 두고 봄이면 백화만발한 《꽃동산》, 여름에는 목욕이 우거진 《목욕산》, 가을이면 단풍이 붉게 타는 《홍아산》, 겨울에는 흰눈으로 은빛단장한 《설백산》이라 불리웠다.

맑고 푸른 동해바다가에 장엄한 기상으로 하늘높이 솟은 기묘한 봉우리들과 깎

을 결정하였다.

칠보산지구의 독특하고 풍부한 생물다양성이 구체적으로 해명되고 이 지구가 세계 생물권보호구로 등록됨으로써 나라의 생물다양성보호에 보다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게 되었다.

칠보산지구는 지리학특성과 자연기후, 다종다양한 생물상, 생태관광 등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다른 생물권 보호구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식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칠보산일대의 침식골짜기들은 협곡으로서 좌우기슭에 암벽들이 분포되어있고 계곡마다에 크고작은 폭포들이 형성되어 경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있다.

주봉을 이루는 상매봉(1 103m)을 중심으로 하여 북쪽에 박달령(761m), 천덕봉(985m), 삼각봉(1 030m), 남쪽에 하매봉(1 045m), 까치봉(900m), 향로봉(844m) 등 해발높이 1 000m안팎의 산들이 솟아있다.

이 봉우리들을 련결하는 선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는 수많은 봉우리들과 기암들이 솟아있으며 풍치좋은 통신과 계곡들이 이루어져있다. 동쪽 해칠보지역은 다른 해안과 달리 바다기슭에 모래불이 적고 대부분 구간이 절벽해안으로 되어있어 바다 쪽에서 바라보면 매우 아름다운 절경을 이룬다.

내칠보와 외칠보, 해칠보의 특이한 풍경으로 하여 더욱 풍치수려한 칠보산지구는 명소만 하여도 160개소나 된다.

또한 황진온천과 보춘온천, 사리온천, 다호온천, 만호온천을 비롯하여 신경제통과 피부병, 소화기계통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큰 광천수가

원이 풍부하다.

칠보산의 좁고 깊은 계곡을 따라 많은 하천들이 흐른다. 비교적 큰 하천은 보춘천과 포하천이다.

칠보산지역은 서쪽에 높은 함경산줄기가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지대가 낮아데다가 바다에 면하고있어 해

양성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제일 더운 8월 평균기온은 21.2℃이고 제일 추운 1월 평균기온은 -7.8℃이며 년평균강수량은 800mm로서 7~8월에 60%에 해당하는 비가 내린다. 여름철에는 주로 남동풍이 불며 겨울철에는 주로 북서풍이 분다.

다 종 다 양 한 동 식 물 상

칠보산지구는 지리학적 위치와 서식지 및 먹이환경의 풍부성으로 하여 국내에서 짐승류와 새류의 40%이상 이 분포되어있으며 식물분포가 독특하고 수직대성이 뚜렷하다.

이 일대에는 소나무, 참나무, 단풍나무를 비롯하여 820여종의 식물들이 분포되어있으며 북부고산지대에서 흔히 자라는 만병초, 백산차도 있고 남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약밤나무, 돌가시나무들도 있다.

칠보산에서 많이 나는 송이버섯은 특이한 맛과 냄새, 높은 영양가치를 가지고있어 널리 소문이 났다.

송이버섯뿐아니라 산삼, 삼지구엽초, 오미자 등 130여종의 약초들과 신의대(칠보산에만 있음), 병꽃나무, 매자나무, 노랑들찌구릅, 중

당굴을 비롯한 16종의 특산식물들, 머루, 다래, 잣, 밤, 가래 등 16종의 식용열매들, 60여종의 산나물들을 비롯하여 경제적가치와 학술적의가 큰 식물들도 많이 유전자 다양성의 중요한 저장고로 되고있다.

칠보산지구는 270여종에 달하는 척추동물(짐승류 39종, 새류 192종, 랑서파충류 21종, 내수면생태계의 물고기류 22종)이 서식하고 있다.

곰, 노루, 너구리, 오소리, 산토끼를 비롯하여 30여종의 짐승류와 수리부엉이, 티르새, 찌르러기, 꾀꼬리 등 각종 새류, 파충류, 랑서류, 곤충류들이 있다. 또한 산달, 산양, 수달, 까막딱따구리, 긴꼬리웃수염박쥐 등 10여종의 위험종동물들이 서식하고있다. 해칠보의

보존알바다에는 명태, 이면수, 게, 문어, 조개, 미역, 해삼, 성게, 섭 등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이곳에

서 자라는 다시마는 맛이 좋고 풍부한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품위가 높은것으로 인정되고있다.

력사유적과 천연기념물

칠보산지구는 우리 선조들의 오랜 문화전통과 반침략투쟁, 슬기로운 지혜와 재능을 보여주는 원시, 고대, 중세유적유물들과 음성과 산성, 무덤, 비, 부도 등 유적유물들도 적지 않다.

명천군 보춘리에서 발굴된 돌도끼, 칼돌들, 화성군과 어랑군, 화대군에서 나온 돌활촉, 돌창끝, 질그릇들, 어랑군 랑견리 하남마을의 고인돌무덤들은 원시, 고대의 대표적인 유적유물들이다.

명천음성과 재덕산성 등의 산성들과 개심사를 비롯한 사찰들, 새로운 령길을 개척한 정산인의 공적을 기념하여 세운 신도령비 등은 대표

적인 력사유적이다.

풍치가아름다운 내칠보의 보락산에 자리잡고있는 개심사는 826년 발해때에 세워졌다.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십검당, 음향각, 관음전, 산신각으로 이루어진 개심사는 학술적가치가 매우 크다. 특히 대웅전에는 현재 11개의 불상과 8만대장경 6권, 목탁, 초대, 나무조각 등 여러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있어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전하고있다.

칠보산에는 이밖에도 포종소나무, 보춘조개, 해칠보달문, 해칠보출입, 해칠보무지개바위, 로적봉, 금강봉과 금강굴 등 10여점의 국가천연기념물들이 있다.

생태관광실현의 유리한 조건

칠보산생물권보호구는 산악생태계, 계곡, 폭포, 울창한 산림 등 다른 지역들에서 볼수 없는 뛰어난 자연경관이 펼쳐져있어 생태관광업발전의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해칠보에는 코끼리바위, 붓바위, 달문을 비롯하여 바다물의 침식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해식동굴과 돌문들, 깎아지른듯한 절벽들의 황홀한 경치를 부각할수 있다.

1766년에 박종이라는 사람이 칠보산을 돌아보고 《맑고 개절한 들에서는 금강산

을 일리야 하고 높고 기발한 점에서는 설악산을 들어야 하며 서리고 겹친 산세로서는 묘향산을 손꼽아야 하지만 깊숙한가운데 기괴한 빛을 갖춘것으로서는 칠보산이 으뜸이다.》라고 썼듯이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과 명소들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칠보산에서는 오래전부터 관광활동이 진행되어 오고있다.

관광은 해마다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관광은 주로 명소들과 력사유적들에 대한 탐관과 해수욕, 동식물



해칠보의 무지개바위

는 송나라장사군들의 배인데 배군들이 마침 시를 읊고있나이다. 소년가 잠시 통역하라이까?》하고 물었다. 리녕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예수에 잠긴듯 한 어떤 사내의 석탁한 말소리를 송이는 랑랑한 소리로 류창하게 번지였다.

... 일손을 멈추고 먼길을 생각하다가 외로이 밤에 혼자 자려니 눈물이 비오듯 하네

리녕은 시의 뜻보다도 송이의 청신한 자태에 머리가

송이의 까만눈이 드리났다. 《그런데 저... 우리가 싸우다면 그 어떤 나라의 침략도 막아낼수 있나йка?》

녀인이지만 송이는 늘 가슴속에 나라를 안고산다. 《그야 여부가 있겠소. 우린 벌써 수십만이나 되는 강포한 거란군도 호찌게 쳐부섰거든. 우리에게 힘이 있소. 누구나 박달임금께서 물려주신 강도를 지켜 목숨도 두려워 안하지. 또 우린 엄초(화약)를 구워내서 불화살을 날리고 오래전에 박원작이라는 개경사람은 고구려시절의 그 천군노까지 다시 만 들어냈소.

만 있으면 나라 위한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하시었나이다.》

《고마워, 송이! 이 밤은 참 좋은 밤이야.》

두사람은 이런 말을 주고 받으며 강을 건너고 선창가를 따라서 백련산기슭의 방골돌네로 꺾어들었다.

강나무들이 우거진 길에 들어서자 리녕은 송이의 손을 잡고 《노력 하나 불려줘.》하고 말했다.

《아이 이걸 어쩌나. 집에 다 왔는데...》

《원 별소릴... 목소리를 작게 하면 될걸 가지고...》

《그럼 그 화구통을 인주시와요.》

송이는 리녕의 어깨에서 화구통을 벗겨 메고는 나직이 노래가락을 뽑았다.

... 불빛넘친 금수강산 그림같은데 아침해 맑게 빛나 조선(단군조선)이라 부른다네

송이의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고운 목청에 혀를 차던 리녕은 번쩍 눈앞으로 류성이 흐르는감을 느꼈다.

그렇지, 박달임금이 세우신 조선! 맑은 아침의 나라!

《송이, 난 래일 이른새벽 저 미라산에 다시 오르겠소. 해돋이순간을 맞이할테요.》

《소년도 함께 가겠나이다.》

그날 밤 리녕은 송이의 부모님들을 만나뵈었다. ...

사화 명화 《레성강도》 (4)

글 전 철 호, 그림 김 윤 일

이제는 송이가 무엇을 말하고싶어하는지 리녕은 능히 알수 있었다.

그렇다! 레성강은 마땅히 동방례의지국의 자랑일뿐 아니라 세상의 자랑이기도 하다. 천하가 다 아는 좌, 우 벽란정을 놓치면 그것은 벌써 레성강이 아니고 변화한 물우의 도회지 와 소나무가 울루면 그건 또 벽란도가 아니며 송악산을 배경으로 황도를 오가는 외국의 사절을 담지 못하면 그건 벌써 고려의 강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레성강에는 당연히 찬란한 문화의 나라이고 려를 그대로 담아야 하는것이다.

《송이! 정말 고맙소.》 리녕은 복받치는 격정을 이길수 없어 송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대는 나를 깨우쳐주었소. 옛날에 어떤 사람은 글한자를 가르쳐주었대서 그 사람을 평생 스승으로 모셨다는데 난... 난 그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는지...》

《광필이 아버지! 우리 고려를 널리 자랑하여주신다면 소년는 더 바랄것이 없나이다.》

두사람은 오늘 비로소 서로 헤어져서는 살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

어둑어둑 땅저미가 누리를 덮을적에 리녕과 송이는 미라산을 내렸다.

《송이! 내 오늘을 평생 잊지 않겠소. 이제... 들어가보요.》

리녕은 몹시 아쉬운 마음에서 송이가 들 좌벽란정을 가리켰다.

그런데 화구통을 벗겨들던 송이는 그것을 다른 어깨에 옮겨매며 좌벽란정이 아니라 강쪽으로 앞서 걸었다.

《송이! 이리저 말라는데...》

《호호, 소년는 오늘부터 며칠간 금가(휴가를 줌)를 받았나이다. 저... 금한일이 없으시다면 소년과 함께 저의 집에 가셨으면 하나이다.》

《집?... 송이네 집이 어디에 있었소?》

리녕은 아직까지 송이네 집도 모르고 그와 상대를 해온것이 어이가 없어 저에게도 아니고 송이에게도 아닌 애매한 물음을 던졌다.

《광필은 벌써 저 건너마을에 있는 저의 집에 가있는 줄 아나이다.》

리녕은 송이의 깊은 마음에 가슴이 뜨거워나서 아무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배다리에 올라서니 강안은 그대로 초파일날 밤의 불당 앞이런듯 배전을 맞든 배들

에서 승벽내기로 비치는 등불로 하여 내달갈았다. 명멸하는 레성강의 밤세상은 벽란도의 또 다른 풍경을 보여 주었다.

두런두런 울려오는 말소리들에 귀를 강구면 왜말쯤은 가려낼수 있는 리녕이었지만 이 밤은 통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허, 오늘은 전부 귀일은 소리뿐이군.》

《그렇겠이나이다. 대식국(아라비아) 장사군들하고 천축국(인디아)사람들이 어제 또 왔나이다. 그 사람들이 이쪽에 닳을 내렸으니 그럴만도 하나이다.》

《대식국에서까지? 과연 먼데서 왔군.》

리녕은 갈란하며 허끄부라진 소리들에 귀를 향하고 움직일념을 안했다.

《광필이가 기다리고있나이다.》

리녕은 송이에게 이끌려 배우에 올랐다.

배 한척에만 올라서면 배전을 잇넌 배들의 장관을 다리로 삼아 저 건너 벽란도로 어렵지 않게 가닿을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제 나라들의 향취를 그리는 말소리들이 울려왔다.

한참 건던 송이가 불쑥 리녕의 팔을 잡으며 《이 배

은 송나라장사군들의 배인데 배군들이 마침 시를 읊고있나이다. 소년가 잠시 통역하라이까?》하고 물었다. 리녕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예수에 잠긴듯 한 어떤 사내의 석탁한 말소리를 송이는 랑랑한 소리로 류창하게 번지였다.

... 일손을 멈추고 먼길을 생각하다가 외로이 밤에 혼자 자려니 눈물이 비오듯 하네

리녕은 시의 뜻보다도 송이의 청신한 자태에 머리가

송이의 까만눈이 드리났다. 《그런데 저... 우리가 싸우다면 그 어떤 나라의 침략도 막아낼수 있나йка?》

녀인이지만 송이는 늘 가슴속에 나라를 안고산다. 《그야 여부가 있겠소. 우린 벌써 수십만이나 되는 강포한 거란군도 호찌게 쳐부섰거든. 우리에게 힘이 있소. 누구나 박달임금께서 물려주신 강도를 지켜 목숨도 두려워 안하지. 또 우린 엄초(화약)를 구워내서 불화살을 날리고 오래전에 박원작이라는 개경사람은 고구려시절의 그 천군노까지 다시 만 들어냈소.

만 있으면 나라 위한 좋은 일을 할수 있다고 하시었나이다.》

《고마워, 송이! 이 밤은 참 좋은 밤이야.》

두사람은 이런 말을 주고 받으며 강을 건너고 선창가를 따라서 백련산기슭의 방골돌네로 꺾어들었다.

강나무들이 우거진 길에 들어서자 리녕은 송이의 손을 잡고 《노력 하나 불려줘.》하고 말했다.

《아이 이걸 어쩌나. 집에 다 왔는데...》

《원 별소릴... 목소리를 작게 하면 될걸 가지고...》

《그럼 그 화구통을 인주시와요.》

송이는 리녕의 어깨에서 화구통을 벗겨 메고는 나직이 노래가락을 뽑았다.

... 불빛넘친 금수강산 그림같은데 아침해 맑게 빛나 조선(단군조선)이라 부른다네

송이의 은방울을 굴리는듯한 고운 목청에 혀를 차던 리녕은 번쩍 눈앞으로 류성이 흐르는감을 느꼈다.

그렇지, 박달임금이 세우신 조선! 맑은 아침의 나라!

《송이, 난 래일 이른새벽 저 미라산에 다시 오르겠소. 해돋이순간을 맞이할테요.》

《소년도 함께 가겠나이다.》

그날 밤 리녕은 송이의 부모님들을 만나뵈었다. ...